

# 원전 주변업체 지원 100억, 유령업체로 흘러갔다

■ 3년간 한빛원전 '지역제한입찰' 참여 24개사 국감 자료

민박집·식당 등 원전과 무관한 업체로 드러나

아예 영업장이 없거나 주소지가 광주인 업체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주변 지역 업체들에 지원한 100억원이 유령업체 또는 전혀 무관한 업체에 새 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새누리당 이채의 의원실이 한수원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한빛·고리·월성·울진원전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화를 위한 혜택을 위해 마련한 지역 제한입찰에 참여한 17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3.9%인 24개 업체가 한빛원전 주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빛·고리·월성·울진 등 4개 원전 주변지역 중 가장 많은 수이다. 발전본부별로 보면 ▲월성 20개 ▲고리원전 12개 ▲울진 2개 등이다.

그러나 문제의 24개 업체는 민박집·식당·문구점 등 원전과 전혀 무관한 업체이거나 아예 영업장이 없는 업체도 있었다. 심지어 지역제한입찰에도 광주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광주지역 전화번호를 둔 영업장도 있었다.

지역제한입찰은 원전 지역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주민들 가운데 한수원이 진행하는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 납품을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채의 의원실은 24개 업체가 지난 3년간 100억1000만원 상당의 계약

375건을 부당하게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계약 2건은 금액이 무려 12억4900만원에 달했지만, 업체 간판이나 사무실이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 소재지는 영광에, 전화는 광주로 연결된 곳도 있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 및 계약 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수원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지역제한입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영업소가 해당 관할구역 안

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하는데, 낙찰업체들은 정상적으로 공사 시행 후 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이어 "지난해 6월 자체점검 결과, (점검시점에 있어) 해당 업체가 등록된 주소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시설(술집 등)이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역지원금은 한수원과 계약한 공사 납품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입찰 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폐단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 10명 중 1명

"원전 30km내 거주"

한빛원전은 15만명 살아

국민 10명 중 1명은 원자력발전소 30km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흥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반경 30km 이내 거주자가 42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리 원전 30km 내 거주자가 종합 인원을 포함해 33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성 원전(133만명), 한빛 원전(15만명), 한울 원전(8만명) 순이었다.

그러나 원전지역 별로 방호물품 보유현황을 보면 감상선 방호약품 구비량은 50만명분, 호흡 방호물품 구비량은 20만개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방사성 비상계획 규정이 원전 반경 10km 내에 거주하는 약 13만명을 기준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흥희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이 단일 구역인 8~10km로 설정된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선진국은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 km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도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늘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명한 가을하늘 속 회전목마 타는 아이들

16일 광주시 북구 생용동 패밀리랜드로 소풍 온 어린이집 원생들이 회전목마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초등 1·2학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은 밤10시까지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희망할 경우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은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심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모두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 확대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자체 수요조사 결과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은 오후 돌봄 33만1000명, 저녁돌봄 12만 3000명 등 약 45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현재 5784개 학교에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7395개 돌봄교실 참여학생 15만9000여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4년제 대학교

### 정교수 평균 연봉 8039만원

광주과기원 1억571만원 1위...전남대 9183만원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교수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8000만 원선이고, 최고 연봉을 주는 대학은 광주과기원으로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교수 연간 평균 보수액은 7034만원이며 광주과기원이 1억 434만원, 광주교대 8983만원, 동신대 8270만원, 호남대 8167만원, 전남대 7933만원 순이다.

조교수 연간 평균 보수액은 5181만원으로 광주과기원 8395만원, 광주교대 8269만원, 목포해양대 6669만원, 전남대 6542만원, 순천대 6339만원 등이다.

시간강사 평균 보수액은 전남대 1135만원, 순천대 1182만원, 목포대 1044만원, 조선대 1008만원 순이다.

다음으로 광주교대(9940만원), 동신대(9577만원), 초당대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림제약이 전하는 건강뉴스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씻

코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코

####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뿐하고! 만성비강염, 알레르기, 비충혈제의 고통으로 인한 청작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국/ 인체와 같은 농도의 면역시약수로는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한 청작 유지  
• 후대판인!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삶임이 편리하여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익기에도 상처에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분형 허기의 일반의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비강 및 청작 증상을 완화  
용법·용량 / 성인·중년·여성·아동 필요 시 양쪽 비강 콧속에 2회 분무하십시오.  
※연령, 성장에 따라 적절히 증강하십시오.

콧속에 뿌리는 비충혈제제거제 – 트인 비액  
• 뿐하고! 코강!로 인한 청작 팽창과 충혈의 불편을 할 수 으로 즉각적 흡습을 발휘  
• 충혈해소! 콧속부 분비증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을 해소  
• 후대판인!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삶임이 편리하여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전신제제! 작용 없이 고 안 원부에만 적용하는 수분형 허기의 일반의약품

온라인 코 건강제

학생용 코 건강제

직장인 코 건강제